

경향대학교
자살 위기대응
매뉴얼



CONTENTS

자살위기 대응 매뉴얼

1. 자살 징후 감지 시

- 1) 자살 암시 신호 확인
- 2) 자살 위기 수준 파악
- 3) 자살 위기 감지시 대응 방법

2. 자살 시도 발생 시

- 1) 긴급 신고
- 2) 자살 시도 발생 시 대응 방법

3. 자살 사건 발생 시

- 1) 긴급 신고
- 2) 자살 사건 발생 시 대응 방법
- 3) 사후 대응 방법

4. 참고자료

- 1) 자살 위기자의 보호적 조치
- 2)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기관

I. 교내 자살 예방 활동

전체 학생을 대상에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하는 자살 예방 영상을 LMS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 의무사항임을 안내, 정신 보건 및 상담교육 진행 (생명지킴이 교육 등)

II. 위기상황 분류

단계		내용	위기 유형	대처방안
1단계	긴급	신체적 손상으로 생명소실 및 기능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우	즉시 119신고 : 구급대 도착 후 인근 응급실 후송
2단계	응급	응급진료가 요구되며 치료 지연시 상위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적극적, 구체적 자살 시도 계획이 확인된 경우	▷보호자 가족 연락 : 학생 상태 파악, 경찰 신고 및 응급 진료 권고(가까운 병원 응급실 후송 또는 정신의학과 당일 진료) ▶보호자(가족) 연락 불가시 : 112신고, 안전 확보 후 응급 진료권고
3단계	준응급	빠른 진료가 필요하지만 응급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자살 징후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경우 2. 지속적인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있거나 정신 병적 증상이 의심되는 경 우	▷당일 학생상담센터 위기개입 상담 ▶상담 거부시 24시간 위기상담 가능 연락처 제공, 보호자(가족)에게 연락하여 진료 권고

1. 자살 징후 감지시

1) 자살 암시 신호 확인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보이는지 학생의 언행을 관찰

언어적 신호



- 나 죽고 싶어
-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이야
- 더 이상 사는 것은 의미 없어
- 전부 정리할 거야
- 남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 불안해서 잠이 안와
-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
- 살아갈 희망이 없어

행동적 신호



- 자살 관련 도구 수집(수면제, 감기약 등)
- 알코올, 약물남용이 심해짐
- 유서를 써 놓음, 신변 정리
- 일기장, SNS에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씀
- 자살 방법에 대해 자주 검색하거나 물어봄
- 평소 아끼던 물건을 주변인에게 나누어 줌
- 과거 자살 시도 경험 등

자살 암시 신호

정서적 신호



- 과도한 불안, 초조
- 극도의 무기력 또는 절망감
- 강한 죄책감 또는 분노 등

상황적 신호



- 중요한 인간관계의 상실
(지인의 자살, 사별, 이별)
- 심각한 질병 진단 또는 만성질환 등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 시험, 취업 실패 등 좌절 경험

1. 자살 징후 감지시

2) 자살 위기 수준 판단

① 자살위기 체크리스트

자살 위험도 평가 항목

- ☐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음(최근 1년 이내)
- ☐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보임
- ☐ 초조해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차분해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감정과 행동을 나타냄
- ☐ 주변에 칼, 끈, 극약, 다량의 수면제, 오래된 알약 등 자살 도구를 가지고 있음
- ☐ 평소에 아끼던 물건,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
- ☐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서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게 함
- ☐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꾸는 등 수면 문제가 있고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함
- ☐ 최근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사망한 경험이 있음
- ☐ 자신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위축됨
- ☐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술 문제가 있음
ex)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 술 때문에 이혼 등
- ☐ 평소에도 자주 '자살을 하겠다'라는 말을 함
- ☐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함

※ 3개 이상 체크되면 '높은 위험'이고 붉은색 항목이 하나라도 체크되면 '아주 높은 위험'

② 자살 위험 수준

수준	내용
낮음	자살 생각은 있으나 자살 계획은 없음.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보통 위험	막연한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자살도구가 구체적이지 않음.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높은 위험	자살계획이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편임.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아주 높은 위험	매우 치명적이며 자살 계획을 갖고 있음. 자살할 것이라고 말함.

1. 자살 징후 감지시

3) 자살 위기 감지 시 대응 방법

자살 위기 판단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학생 상담센터 (041-731-3217) 로 문의주세요.

고위험군	자살사고 : O 구체적 계획 : O 시도 : O
교내외 관련 센터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상담센터 (041-731-3217)▶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41-746-8121~7)▶ 백제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041-730-8888)
심각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가족)에게 연락<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동의 필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있어줄 것을 요청▶ 상담+병원치료 권유<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상담센터와 병원 의사의 협력으로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속적인 권유에도 거부할 경우 지도교수, 상담전문가와 논의 후 추후 방향 결정▶ 비호전이나 악화될 경우 의사소견서 및 상담의견 참조하여 휴학 필요성 논의
잠재 위험군	자살사고:O 구체적 계획:X 시도:X
학생상담센터 안내 및 정서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권유 및 학생상담센터 의뢰▶ 상담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상담 거부 시 24시간 위기상담 가능 연락처 제공, 보호자(가족)에게 연락하여 진료 권고

2. 자살 시도 발생 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는 위급한 상황

최초 발견자의 긴급신고	교내 위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의 경중 판단<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가 있거나, 상해 위험이 높은 경우 119 신고▷ 혼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도움 요청<ul style="list-style-type: none">교학지원처 041-731-3211~5학생상담센터 041-731-3217기숙사사무실 041-731-30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 및 환자 이송<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경위 파악▷ 보호자 연락<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학생 보호자 면담▷ 관련부서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장 보고
협조 부서: 학생상담센터 041-731-3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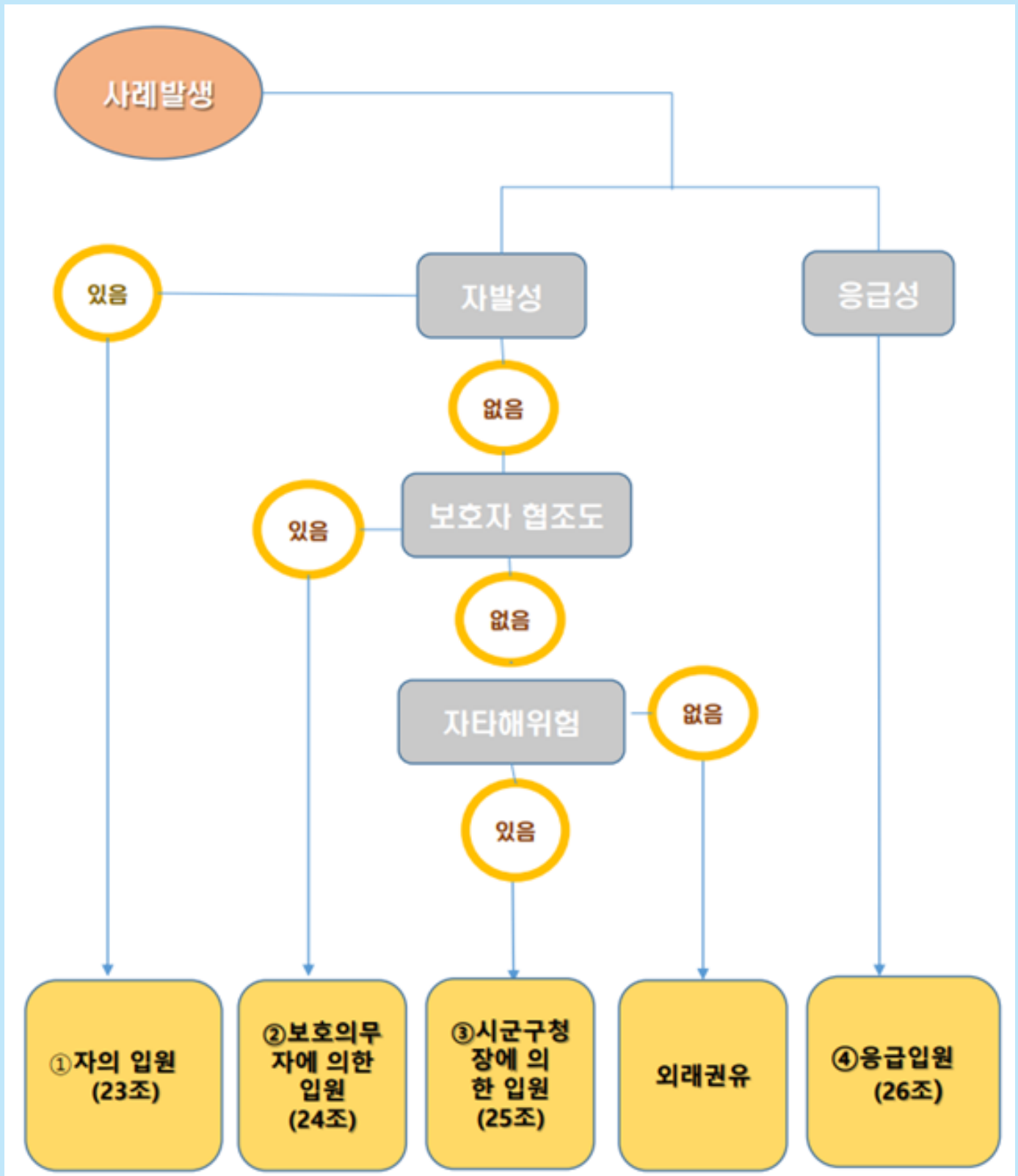
3. 자살 사건 발생 시

① 최초 발견자의 긴급 신고	② 긴급 회의(학과 및 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또는 112에 신고 ▶ 학생상담센터 041-731-3217 ▶ 기숙사 사무실 041-731-3063 ▶ 교학지원처 041-731-32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경위 파악(일시, 장소 학생 신변 등) ▶ 관련 부서 및 기관 통보 ▶ 사후 처리 방안 협의
③ 보호자 연락	④ 사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동의하에 신중하고 신속한 대처 ▶ 보호자 상담지원 필요 시 지원 ▶ 가족에게 학교의 지원 방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학우 모니터링 (공황, 불안, 무기력, 불면 등) ▶ 주변 학우 애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픈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학생 상담 지원 및 모니터링 ▶ 기타 필요한 행정 업무 지원

4. 참고자료

1) 자살 위기자의 보호적 조치

자살 위기가 급박하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하여 자·태해 위험이 있을 경우 고려하는 입원 유형



자살위기자의 입원유형에 대한 법령

① 자의 입원 (정신보건법 23조)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가장 권장되는 형태의 입원 방법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을 막을 수 없다.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24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입원방식으로 강제 입원의 형태이다.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상황에서 내담자는 입원에 대한 자발성이 없다. 이런 경우 법적인 보호 의무자가 협조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때 보호의무자는 2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보호 의무자가 1명뿐이라면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만 한다. 만일 보호의무자가 전혀 없다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연장을 하려면 해당 기초정신보건 심판위원회의 판정이 있어야만 한다.

③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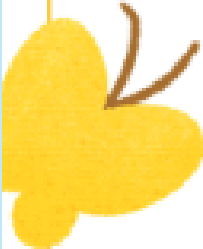
내담자의 자발성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내담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상담자의 판단 상 내담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든 보호적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 내담자의 아버지는 내담자에게는 전혀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에 위험도가 크고 내담자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입원 형태이다. 이런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하여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④ 응급입원 (정신보건법 26조)

급박한 위험으로 자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경찰관의 도움이 우선 있어야 한다. 상담자의 판단 상 내담자가 위험하다고 고려되어도 경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적어도 경찰관이 동의를 해서 내담자를 종합병원이나 정신과병원으로 후송했을 때 병원의 의사가 자타해 위험에 동의하면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이 실행되는 입원방식이다. 대부분 정신과병원으로 입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2시간 이후에는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살위기자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입원 형태이다.

4. 참고자료

2)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p>교내 (09:00~18:00)</p>	<p>학생상담센터 041-731-3217 교학지원처 041-731-3211~5</p>
<p>교외 (24시간)</p>	<p>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희망의 전화 129 정신건강위기센터 1577-0199</p> 
<p>야간의 경우, 교외 24시간 센터와 통화 후에도 위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p>	<p>학생상담센터 041-731-3217 기숙사 사무실 041-731-3063</p>